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시해한 까닭은?

새 변혁 시도하고자 시해 정권 장악

1. 수당 교체기와 고구려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만 기록하는 것일까? 아니면 패자의 편도 배려해 기술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종래의 모든 역사는 승자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승자 독식의 역사는 '반편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역사 이해는 그 이면에 실려있는 패자의 입장까지 기술해야만 한다. 기존의 역사 서들은 패자의 왜곡과 과장만 기술되어 있을 뿐, 그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나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반국(蕃國)의 역사는 제국(帝國)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기록된 사실을 비판의식 없이 수용해 기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승자 혹은 제국의 역사관에 입각해 기록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역사가의 비판적 기술은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역사는 대하처럼 끊어지지 않고 변변히 이어서 흘러오고 있다. 때문에 그 역사적 흐름은 사가의 시대 구분에 의해 기술된 역사인식에 그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가의 '사관' (史觀)과 '주체' (主體)가 된다. 어떠한 사관에 의해 기술할 것이며 누구를 역사의 주체로 볼 것인가에 따라 역사는 달리 기술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가의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은 해당 역사서에 깊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사서와 (삼국사기) 등 몇몇 사료에서 극단적인

연개소문에 대한 사가의 왜곡과 비판 의식을 읽어 내지 못하면 그는 고구려의 독재자이자 역성자이며, 권력자이자 폭력자라면 이해하게 된다. 당시 장수들은 모두 다섯 자루의 칼을 찢으며 말을 탈 때에 하마 대가 없으면 무장들이 대신 엮드리는 것이 관례였다. 영양왕과 을지문덕 등의 장수들의 지휘에 의해 수나라와의 네 차례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끈 고구려는 긴 남북조 시대를 마감시켰다. 수나라에 이어 전국을 통일한 당나라에 맞서는 유일한 나라는 고구려뿐이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수나라의 패망을 불러일으킨 고구려는 수를 이은 당나라에 유희책을 펼쳤다. 연개소문은 642년 쿠데타를 일으켜 영류왕을 시해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그는 영류왕의 동생인 대양(大陽)왕의 아들인 보장(寶藏)을 왕위에 올린 뒤 위기의 고구려를 여러 차례 구해냈다.

2. 고구려의 자존심

영양왕의 이복동생인 영류왕(榮留王, 建武)은 본디 바다에 능한 장수 출신이었다. 수나라와 네 차례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졌으나 국력이 크게 소모됐다. 고구려는 수와의 전쟁에 치중하면서 신라에게 여러 성을 빼앗기고 백제에 공격을 당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이 들어서자 영류왕은 당나라에게 유희책을 썼다. 종래 국제간의 관례에 의해 수나라에 조공(朝貢)을 보내고 책봉(冊封)을 받아왔듯이 영류왕 역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하였다. 재위 7년에는 당에 사신을 보내 역사(曆書)를 반포해 줄 것을 청하였다. 재위 9년에는 신라와 백제가 당에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가 길을 막고 조화를 못하도록 하며 또 자주 침략한다"고 전하자 당제(唐帝)는 사신 주자사(朱子奢)에게 절(節)을 가지고 타 이르게 하였다. 영류왕은 표를 올려 사죄하고 신라와 백제 양국을 평화롭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심지어 재위 11년에는 당에 사신을 보내어 태종이 돌궐의 힐리가한을 사로잡은 것을 축하하고 겸하여 고구려의 국가기밀인 봉역도(封域圖, 疆域圖)까지 올렸다. 14년에는 수나라 전사자의 해골을 묻고 위령제를 지냈으며 고-수 전쟁의 전승기념물 경관(京觀)을 헐게 했다. 재위 23년에 영류왕은 태자 환관(桓桓)을 당에 보내어 조공하였고, 청년 자제들을 당에 보내어 국학(國學)에 입학할 것을 청하였다. 재위 24년에는 당이 고구려 태자의 입조에 대한 담례로 사신 진대덕(陳大德)을 보내자 수령들이 명승과 산수를 좋아한다는 그를 인도하여 고구려 곳곳의 미세한 곳까지 알게 하여 국가의 기밀이 엿보이게 했다. 영류왕 치세하에 고구려의 저자세는 고(高)-수(隋) 전쟁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고구려 국민들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재위 25년 영류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서부(西部)대인 연개소문을 시켜 장성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해 10월 대양 강경론자였던 연개소문은 쿠데타를 일으켜 영류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으로 보장을 올렸다.

연개소문은 국내 정치질서의 재편과 당나라와의



민족기록화 '연개소문의 사수성 싸움'. 연개소문은 당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고구려의 자존심이었다.

유희책을 위해 도교의 국가적인 수용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는 보장왕에게 "유·불·도 삼교는 마치 술과 같아서 하나만 빠져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유불은 흥왕하여도 도교는 번성하지 못하니 이른바 천하의 도술을 갖춰야 할 수 없지 않습니다. 천군대 사신을 당에 보내어 도교를 구득하여 국민을 가르치소

망국정치가 왜곡 벗어나면

동북아 정세 주도한 영웅 품모 보여

서"라고 하였다. 보장왕은 그 말을 깊이 깨닫고 당나라에 표(表)를 요청했다. 당 태종은 도사 속달(叔達) 등 여덟 사람을 파견하고 동시에 노자의 (도덕경)을 보내주었다. 왕은 기뻐하여 승사(僧舍)에 그들을 거처하게 하였다.

하지만 연개소문의 이런 정책은 상대적으로 불교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평양 근교의 반룡사(盤龍寺)에 머무르던 열반학과 방등학의 대가였던 보덕(普德)은 왕에게 주청했다. "좌도(道)가 들어와 정도(正道)에 맞서면 나라의 기틀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라고 여러 차례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종래에 승려가 맡았던 관직은 도사가 맡았고 기존의 사찰은 도관으로 바뀌면서 불교는 매우 위축됐다. 결국 보덕은 650년 6월에 신통력으로 자신이 머무르던 사방 1장 크기의 방장(方丈, 암자)을 날려 남쪽에 있는 완산주의 고대산으로 옮겨갔다. 이때의 기록은 이자현(李資賢)이 남긴 시와 김부식(金富軾)이 지은 (보덕화상전)에 담겨 있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보덕이 이곳으로 옮겨오자 얼마 뒤 고구려는 망하였다. 뒷날 이곳으로 보덕을 찾아온 원효와 의상은 그에게서 열반의 도를 물었다고 일연(一然)은 시 <도반산언복사에보덕성사비방구지>(到盤山延福寺禮普德聖師飛房舊址)에 전하고 있다.

3. 국난을 구한 영웅

아버지 당 고조에 이어 제위에 오른 태종은 수나라의 치욕을 해소하기 위해 고구려 정벌 준비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즈음 당은 주변의 여러 나라를 북속하였지만 고구려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다.

당 태종은 '연개소문이 임금을 죽이고 국정을 전제한다'며 고구려 침공을 공공연히 언급하였다. 642년에 이어 영류왕에 이려 보장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해 가을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백제가 우리 40 여성을 쳐 빼앗아가고, 다시 또 고구려와 군사를 연합하여 입조(入朝)하고 길마저 끊으려고 합니다"하며 군사를 내어 구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보장왕은 재위 3년에 당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이에 당제는 "신라는 우리나라에 귀의하여 조공이 끊이지 않으니 너희는 백제와 더불어 각각 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다시 신라를 공격한다면 명년에 군사를 내어 그대 나라를 치겠다"고 하였다.

고구려 침공에 대한 명분을 쌓아가던 당 태종은 644년 10월 겨울 드디어 고구려 침공의 깃발을 들었다. 요동의 6개 성 중 먼저 신성을 공략했으나 여의치 않자 백암성과 요동성과 비사성 등을 공략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시성에 집중하였지만 쉽게 공략할 수 없었다. 양만춘을 비롯한 승병(僧兵) 3만의 집요한 방어에 부딪쳐 한 눈을 잃고 등장을 앞이며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 태종은 장안으로 돌아와 이 정(李靖)에게 "내가 천하의 병력을 가지고도 조그마한 오랑캐에게 곤욕을 당한 것은 무슨 까닭이요"라고 물었다. 옆에 있던 도종이 당제가 주필산에 있을 당시에 적의 빈 틈을 타서 평양을 빼앗기로 하였던 이야기를 낱알이 아뢰었다. 당제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당시에 내가 너무 조급해서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649년 당 태종은 유서에서 "다시는 요동을 남보지 말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전사와 비사를 추적했던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연개소문은 지은 (해상잡록)(海上雜錄)과 (김해병사)(金海兵書)는 빼어난 명저였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김해병서)는 중국의 7대 병서 중 하나

인 (이위공병서)의 모델이 됐다. 신채호는 연개소문이 중국 내륙의 북경(유주)지역까지 제패해 고구려군을 주둔시켰으며 그 흔적이 '고려영' (高麗營)이라고 했다. 북경순위현지의 '고려영진' 조에도 '고려영'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곳에는 지금도 성을 단단히 하기 위해 석회를 바른 토성(土城)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옛성 주위에는 해자(壕字)의 흔적이 남아있다.

중국의 송원명대 희곡을 모은 (명설창사화집)(상해, 1971)에는 '막리지 연개소문비조도'가 실려 있다. 그곳에는 연개소문이 썼던 날아다니는 칼(飛刀)의 출사위가 일부 남아있다. 중국에서는 이 희곡집의 이야기에 기초한 연개소문 관련 경극이 매우 성행했다. 이들 경극 속에는 고구려 막리지 연개소문과 당나라 장수 설인귀의 싸움 장면이 담겨있다. 근래에는 연개소문이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적 인물로 연상된다며 북한의 요청에 의해 경극에서 그를 지워버렸다고 전해진다. 국난을 구한 민족 영웅 연개소문을 주체사상을 강조한다는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은 '반편의' 체제의 허약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일본서기)에는 '천지천황 3년 冬10월'에 고구려 대신 개금(蓋金, 연개소문)이 죽었다고 전한다. 연개소문은 여러 지식들에게 유언하기를 "너희들 형제는 고기와 물과 같이 화합하여 작위를 다투지 말라.

대당 회유책으로 도교 권장

상대적으로 불교세 쇠락은 흥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다.

말이 씨가 된 것일까. 연개소문이 죽자 남생(南生)은 당나라 이간책에 넘어가 당나라에 투항했다. 이를 막으려는 남건(南建)과 남산(南産)은 다시 또 갈라져 마침내 고구려는 최후를 맞이한다.

일찍이 민족사학자 단체 신채호는 연개소문을 "4천년 역사에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영웅"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수나라에 이은 당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나라의 위기를 이겨낸 연개소문이 단지 왕을 시해했다는 사실에서 폭군의 이미지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는 강성한 당의 공격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영웅이었고 동북아시아를 호령했던 고구려의 자존심이었다.

참고문헌

-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신호열 역주, <삼국사기>(동서문화사, 1978; 2010).
- 전용신 역주, <완역 일본서기>(일지사, 1987)
- 역사스페셜, <연개소문, 독재자인가, 영웅인가>(2000. 07.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예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대칼라지붕공사